

제 23 장 글라우디오와 기독교

1.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기독교: AD 41년 가이오가 피살당한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톨레미 왕조를 대표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해 주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헬라 시 자체의 설립처럼 동일한 왕권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독립된 공동체로서 이 특별한 권리들을 누린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불렸고, 반대로 이주민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 입주하여 온 많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본래 그 도시에 거주한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AD 41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편지를 보면, 그가 유대인의 세력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수리아와 애굽에서 로마로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에 대해 취한 금지령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편지 내용 중 ‘온 세상을 감염시키는 일반 전염병’과 사도행전 24:5에 더돌로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송사할 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고 한 말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알렉산드리아에 소개됨으로써 야기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 내의 소동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의 기원은 불분명하나 기독교가 적어도 AD 41년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전래되었다는 견해가 어느 면에서 보다 분명합니다.

한편, 가이오로부터 만족할 만한 처우를 받지 못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요세푸스의 포고령에서 알 수 있음)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헬라인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고 글라우디오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다툼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 로마에서의 기독교: 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의 인구 팽창을 억제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약 8년 후에 그가 그 수도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유대인들의 어떤 소요와 통치하기 힘든 유대인들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즉위하기 전에 기독교가 알렉산드리아에 전래된 것처럼, 로마에도 그때까지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암시를 아무 데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받는 인상은 바울이 그들과 교제할 때에는 이미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그때까지 로마에 전해졌다는 사실-실제로 그 수도의 유대인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글라우디오의 칙령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스의 선동으로 글라우디오가 그들을 그 도시에서 추방하였다”는 수에토니우스의 진술에서 자연스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불법적인 유대인들의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유사한 염병을 빚어내지 않도록 그들을 날카롭게 경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카시우스는 그들을 추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을 제한하였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최초로 소개된 일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기독교회는 그것의 초창기에 철저히 유대적이었으며, 그리고 사도 시대 이후로도 상당 기간 로마 기독교는 유대적인 기원에 대한 어떤 면모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면모들은 더욱이 주류보다도 비국교도적인 유대주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사에서 첫 장이며, 거의 연대가 없는 그 장은 주후 49년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유대인들은 모두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큰 세력으로 다시 로마에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년 전의 디베료의 비슷한 칙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문화된 것처럼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칙령도 아마 그가 죽음으로 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은 주후 54년에 열렸습니다.

3. 데살로니가 소요 사건: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로마 추방령이 있는 후, 곧 그 칙령을 야기시켰던 것들과 유사한 소요 사건이 데살로니가에서 발발했습니다. 주후 50년 봄 로마에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지방 장관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고소를 제기한 유대인 지방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행 17:6 이하). 그들이 고소하는 말은 전국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던 제어하기 어려운 동요들에 적합한 표현이며, ‘메시아적’이란 말이 다소 어울리는데 (만일 이 형용사가 광범위한 의미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므로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잘 아는 책임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타까워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마 주후 44년 헤롯 아그립바가 죽은 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유대인 열광 신자 운동의 부활과, 또 특히 쿠마누스 행정 장관 임기(약 48-52)와 관계가 있습니다.

4. 글라우디오 치하에서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증거로 생각되었던 문헌에다가 뭔가 더 첨가되어야 합니다. 파리의 메다이유 박물관 진열실에 1878년 이래로 프뢰네 콜렉슨 중의 일부인 대리석에 새긴 석판이 있었습니다. 석판의 내용을 보면 황제가 친히 팔레스타인에서 무덤 약탈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형벌이 몹시 과중해서 사형에 처하겠다는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글라우디오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고적 연구가였던 그가 그 운동의 기원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운동이 죽었으나, 그의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주장한 예수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서,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 때 이에 대한 답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예수의 몸을 장사 지냈는데, 밤중에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조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간 것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약탈하는 행위가 온 세상을 감염시키고 있는 전염병을 만연시켰다고 판단하고서,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런 행위가 또 되풀이되는 때는 가차 없이 특별히 중형을 가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립바의 사후(AD 44) 몇 년이 지나서 로마의 유대인 지역에서는 기독교의 전파가 점점 평화를 침해하는 사태를 빈번히 일으키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고립시키거나 그들을 상대하거나 하지 않고, 유대인 모두가 로마를 떠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5.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도: 주후 41년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온 이방인 세계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방인들 사이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사회에도 이미 그 선교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은 지 13년 후 사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의 남부 도시들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중심 도시들도 역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바울의 복음 활동의 결과로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도시들의 대부분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가를 거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